

최인호 중편소설에 나타난 자유의 문제

— 「무서운 복수(複數)」와 「깊고 푸른 밤」을 대상으로

곽 상 순*

요약

본고는 「무서운 복수(複數)」와 「깊고 푸른 밤」을 대상으로 최인호 중편소설에 나타난 자유의 문제를 다룬다. 「무서운 복수(複數)」의 최준호와 오만준은 모두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최준호에게 자유란 일탈의 자유이지만, 공권력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그것은 언제나 회수될 수 있는 자유이다. 오만준에게 자유란 강요된 선택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에게 선택은 언제나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의 선택으로 제시되며, 이전에는 무엇을 선택하든 더 나쁜 쪽을 선택하게 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만준은 가장 나쁜 것처럼 보이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 「깊고 푸른 밤」의 소설가 ‘그’와 ‘그’의 후배 준호는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의 길을 떠나지만,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국에 있는 준호에게 마리화나는 일탈의 자유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현실도피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한국에서 준호는 최준호와 동일한 일탈의 자유를 희구하며, 동일한 억압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오만준의 상황에 더 가까워진다. 그는 강요된 선택의 상황에 처하게 되며 역시 오만준과 마찬가지로 가장 나쁜 것처럼 보이는 절대적 부자유의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무서운 복수(複數)」의 최준호에게 억압과 금지는 자유의 가능성의 조건이자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연구교수

불가능성의 조건이다. 그의 자유는 권력에 의탁한 자유이며, 억압과 금지에 기생하는 자유이자, 가장 자유로운 순간에조차 결코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이다. 반대로 오만준은 가장 자유롭지 못한 순간에서야 비로소 스스로의 궁극적 자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자유는 자유를 오염시키는 강요된 선택이라는 폭력을 통해서만, 자유 그 자체를 무화시키는 억압의 형식 속에서만 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암흑과도 같은 죽음의 한 가운데에 강렬한 삶의 가능성이 놓여 있음, 혹은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절대적인 부자유의 형식 속에 오히려 절대적인 자유의 가능성이 놓여 있음을 『깊고 푸른 밤』의 결말은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삶은 궁극적인 죽음과 공존하며 전적인 자유는 전적인 부자유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최인호는 『무서운 복수(複數)』와 『깊고 푸른 밤』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최인호, 자유, 억압, 강요된 선택, 무서운 복수, 깊고 푸른 밤

목차

1. 서론
2. 자유의 불가능성의 조건이자 가능성의 조건으로서의 억압 : 「무서운 복수(複數)」
3. 자유에게로의 도피, 혹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 「깊고 푸른 밤」
4. 결론

1. 서론

최인호의 소설은 늘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시비’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¹⁾ 「견습환자」로 등단한 이후, 「술꾼」과 「타인의 방」 등의 주목할 만한 문제작들을 잇달아 발표한 최인호는 점차 장편소설에 창작의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주도하던 당대 문단으로부터 배

1) 한수영, 「억압과 에로스」, 『황진이-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2, 296면.

제되었고, 대중소설 작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²⁾ 그러나 한편으로 최인호는 1970년대 내내 청년문화의 기수로 각광받기도 한다. 청년문화는 서양에서 수입한 대중문화의 스타일과 풍속들을 외피로 두르고 있으면서도, 국가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및 민중문화론의 민족주의적 엄숙성에 대한 거부와 이탈을 동시에 보여준다.³⁾ 분명 청년문화는 소비, 유행, 취향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대중문화의 한 지류이지만, 동시에 민중주의가 독점해온 지배 권력에 대한 거부와 비판의식 또한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인호의 소설은 권력이나 억압의 문제와 관련하여 언제나 양가적이다. 그의 소설은 권력의 억압에 저항적인 동시에 순종적이며, 또한 순종적인 동시에 저항적이다. 흔히 본격문학이라 일컬어지는 리얼리즘적인 소설이나 모더니즘적인 소설도 유려하게 쓸 수 있는 그는 이러한 비판적 궤도에서 이탈하여 대중과 권력에 순응하는 듯한 당의정 문학을 생산해내는 데에도 열심이며, 그러나 이처럼 순응적인 그의 소설들에서도 민중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맥락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기성세대 비판을 읽어낼 수 있다. 그것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일체의 기성문화를 모두 거부하려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존의 체제 비판이나 권력에의 저항보다 훨씬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비판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최인호 소설의 본령이 저항적인 것인지 순응적인 것인지, 본격문학적인 것인지 대중문학적인 것인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적이면서도 순응적이며 본격적이면서도 대중적인 그의 문학의 고유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최인호의 중편소설에 나타난 자유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특히 그의 소설들 중 『무서운 복수(復數)』와 『깊고 푸른 밤』이 자유의 문제를 어떻

2) 심재욱, 『1970년대 '증상'으로서의 대중소설과 최인호 문학 연구』, 『국어국문학』 171, 국어국문학회, 2015. 6, 575면.

3)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8, 422면.

게 다루고 있는지, 두 소설의 주인공들이 스스로를 어떤 억압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72년 발표된 「무서운 복수(復數)」는 『별들의 고향』으로 대표되는 최인호의 대중적 성공 이전, 그가 남긴 마지막 사실주의적 성취라 부를 수 있는 작품이다.⁴⁾ 단수(單數)인 개인과 복수(復數)인 집단을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최인호는 개인의 자유 및 권력의 문제를 대학 시절의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주의적 현실 탐색은 곧 중단되고 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치현실에 대한 사회성 짙은 탐색이 대중성을 띤 청년문화에의 참여로 전환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최인호가 버리려 한 것은 무엇이고 취하려 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인호의 사실주의적 저항 의식과 청년문화적 저항 의식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등의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청년문화 혹은 대중문화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최인호의 작가적 의도를 이해하고, 그 소설적 성취를 평가하며, 문학적 연속과 단절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복수(復數)」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리라는 것이다.

한편 1982년에 발표된 「깊고 푸른 밤」은 청년문화의 기수이자 대중문학의 침병이라는 자신의 역할에 지친 최인호 본인의 현실 인식과 자아 인식이 가감 없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설이다. 자신의 지난 삶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음을 어렴풋이 깨달아버린, 그럼에도 어디에서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최인호는 본인 스스로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

4) 위대한 소설은 관습의 세계를 수락하려는 의식을 고문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한 문학평론가 김현은, 이처럼 의식을 고문하는 최인호의 소설로 「미개인」과 「무서운 복수(復數)」를 꼽은 바 있다. 한수영, 「억압과 에로스」, 『황진이-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2, 312면.

음을 고백한다.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패배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데, 이는 작가로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서고 싶은 최인호 본인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깊고 푸른 밤』을 통해 우리는 주인공들의 이러한 방향의 궁극적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극복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방향과 극복은 최인호의 문학적 이력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지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이면서 동시에 가까운 두 남자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무서운 복수(復數)』와 『깊고 푸른 밤』을 특히 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소설들은 청년문화의 기수이자 대중문학의 첨병으로 활약해 온 최인호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두 작품을 함께 다루는 것은 최인호 문학의 고유한 주제를 탐색하는 공식적 관점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적 연대기를 탐색하는 통시적 관점에서도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2. 자유의 불가능성의 조건이자 가능성의 조건으로서의 억압 : 「무서운 복수(復數)」

학교를 구 년째 다니는 복학생이자 제법 필명을 날리는 소설가인 최준호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오만준으로부터 성명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교련 반대 데모를 준비 중인 오만준에게 최준호는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응낙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쓰지 못하고 만다. 백지를 앞에 놓고 무언가를 쓰려고 시도할 때마다 자꾸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준호는 군대 시절 외출 나오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대대 고참 하사의 짐을 대신 들어준 적이 있다. 무언가 가득 담긴 라면박스를 혼자 어깨

위에 올려놓고 걸어가는 고참 하사의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최준호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그것을 들고 가겠노라고 자청했던 것이다. 박스 안의 내용물을 빨랫감이라고 둘러대던 하사는 선선히 박스를 넘겨준 후 지나가던 트럭 한 대를 세웠다. 트럭에는 상사 한 명이 타고 있었으며 비행기용 제이피 기름이 가득 든 오 갈런 통 두어 개가 뒷좌석에 숨겨져 있었다. 최준호는 그가 주기장에 세워놓은 비행기 배꼽에서 남은 기름을 빼다가 소위 두붓값 정도 벌려는 심산이라 짐작했다.

“이게 뭡니까?”

병장 계급장을 단 헌병이 무뚝뚝하게 물었다.

“기름이다. 왜?”

상사가 말을 했다.

“안 됩니다. 이것은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올 때 담배 한 갑 사다주마.”

“거 뒤에 있는 라면박스는 뭡니까?”

“빨랫감입니다.”

김하사가 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좀 봅시다.”

“야, 야, 왜 구질구질하게 야단들이야. 올 때 내 만두 사다주마, 만두. 이 아이들은 우리 대대에 있는 모범사병들이야, 모범사병. 알겠어? 그럼 수고해.”

상사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차는 달리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⁵⁾

이 장면은 일종의 연극과도 같다는 인상을 주는데,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행위의 의미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상

5) 최인호, 『무서운 복수』, 『황진이-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2, 217-218면.

사는 김 하사가 라면박스를 짊어지고 가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김 하사와 최준호 또한 상사가 트럭을 몰고 외출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체크 포인트의 헌병 역시 트럭을 몰고 가는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그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 대충 다 알지만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거나,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는 않겠다는 태도가 이 장면의 인물들의 주된 태도인 것이다.

최준호에게 자유란 이처럼 공식적인 법과 규율을 암묵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한 위반과 무시를 통한 공적인 법과의 거리두기는 엄격한 규율에 시달리는 주체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한다. 그 공간과 거리 속에서 인물들은 스스로를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로 경험한다. 그들은 단순히 규율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며, 그러한 규율을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자율적 위반을 언제든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적 권력의 대응에 따라 언제든 이러한 거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적 권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암묵적인 위반 행위는 위반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서로의 공감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던 행위가 갑자기 특유의 연극성을 상실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출에서 기대한 다음 날 오후 최준호는 부대 내에 있는 수사기관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위문품을 부정 유출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최준호는 왜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은 위문품을 부정 유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백의 주장은 자신이 분명 유죄로 판단될 수도 있으리라는 불길한 예

감과 겹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몰랐다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 이 모든 것은 헌병으로 상징되는 공적 질서의 묵인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럼에도 헌병대와는 또 다른 기관인 특별 수사 기관의 수사관들은 마치 그런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듯이, 자신들은 그러한 연극적 행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듯이 행동한다. 최준호는 권력의 이러한 뻔뻔하고도 변덕스러운 대응을 주체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근본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어제까지 공적 질서를 지탱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던 행위들을 공적 질서를 위협하는 말 그대로의 위반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그들은 어제까지 그러한 위반 행위의 공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마치 어제의 일은 모두 모른다는 듯이, 그러한 위반은 오직 너희들만의 일이라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있다. 공적 기관의 이러한 대응은 최준호에게 자신의 자유로운 일상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인식되면서 놀라움과 억울함, 그리고 자기 모멸감을 동시에 안겨준다. 그는 일상적인 위반 행위에 지극히 소극적으로 참여한 대가로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위반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권력에 철저하게 종속된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모멸감을 아울러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겪은 후 최준호는 “서랍 속에 들어 있는 과도가 서랍 속에 있긴 했지만 언제나 내 의식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에게 공적 질서와 규율로 상징되는 금지는 언제나 자유롭게 위반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또한 언제나 “서랍 속에 들어 있는 날카로운 과도”에 의해 상처받을 수 있다. 최준호에게 데모는 대학생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상징하는 위반 행위이자 권력과의 공모에 따른 연극 행위이다. 최준호에 의하면 그들의 데모는 “결코 뒤에서 적을 쏘아 죽이지는 않는다는 서부 개척시대의 건맨 같은 프라이드”를 제공하는,

데모를 막아서려는 무장 경관들과의 “페어플레이”에 불과하였다. 그에 의하면 데모는 교련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생들의 유일한 구원이요 합창”이었고, “데모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약과도 같은 습관”이었다. 데모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생동감을 제공하는 유일한 위반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월남의 중립문제나 새로 생긴다는 혁신 정당, 교련 반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행위는 아니었다. 데모는 마치 군인들이 몰래 남은 기름을 빼돌리거나 소량의 위문품을 뒷구멍으로 유출하는 것처럼, 또한 학생들이 교련 시간에 교관을 상대로 악의 없는 장난질이나 조롱을 해대는 것처럼, 공적인 질서와 규율, 틀에 박힌 일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하려는 학생들 특유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위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권력과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규율을 위반하려는 시도일 뿐 실제로 권력 그 자체를 겨냥하거나 그것에 심각하게 저항하려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권력은 언제나 돌변하여 그들을 규율을 위한 꼭두각시로 길들이려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준호의 예감처럼 실제로 권력은 어느 순간 태도를 바꾸어 데모를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조그마한 위반의 가능성조차 모두 박탈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망연히 담배를 피워물었을 때였다. 나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받았다. 군인용 트럭이 지프차의 호위를 받고 헤드라이트를 켜 채 학교 안으로 질주해 들어오고 있었다. 트럭 위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만재해 있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으로 커튼을 내리고 커튼 틈으로 숨죽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동상 앞 공터에 차를 세우더니 트럭에서 내려 민활한 동작으로 사방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짜고짜 벤치 혹은 잔디밭에 덩굴고 있던 학생들을 잡아들

이기 시작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들의 머리에서는 철모가 햇볕에 번득이고 있었다. 그러자 수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쪽으로 뛰어가면서 용감한 축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창문을 굳게 닫았으므로 그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행동은 우리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무어라고 손짓하는 타인의 생경한 행동을 보는 것처럼 단조로우나 그러나 더욱 섬뜩한 느낌이었다.⁶⁾

최준호에게 폭력은 이처럼 자유로운 위반 행위를 말살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말한다. 그것은 학생들을 향한 군인들의 과도한 진압이나 난폭하고 무자비한 직접적 구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최준호에게 보다 근원적인 폭력 행위로 인식되는 것은 자유로운 일상적 평정을 깨뜨리려는 공권력의 갑작스러운 침입이다. 평소에 권력은 규율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공식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위반을 암묵적으로 허용한다. 공적인 법과 암묵적인 위반 사이의 이러한 균형이 최준호가 인식하는 일상적이고도 자유로운 현실의 이미지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 깨지기 쉬운 평정은 아주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위태로운 균형이다. 때문에 최준호는 일상적인 자유로움을 구성하는 위반 행위에 전적으로 몰입할 수가 없다. 최준호는 데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 역시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는 제한된 자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으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준호에게 억압과 금지는 자유의 가능성의 조건이자 불가능성의 조건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최준호의 자유가 위반의 자유인 한, 그것은 필연적으로 억압과 금지를 필요로 한다. 억압과 금지가 없다면 위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의 자유는 언제나 잠정적이고 일시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억압과의 공모 관계가 끝나면 위반의

6) 최인호, 『무서운 복수』, 『황진이-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2, 272-273면.

자유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자유는 권력에 의탁한 자유이며, 억압과 금지에 기생하는 자유이자, 가장 자유로운 순간에조차 결코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이다. 스스로의 자유가 언제든 회수당할 수 있는 자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그는 가장 자유로운 순간에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최준호의 자유가 이처럼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유라면, 반대로 오만준의 자유는 가장 자유롭지 못한 순간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비로소 획득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평범하지만 열정적인 사내인 오만준은 학생운동의 대의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호명에 순응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겉보기에 그는 흔들림 없는 투사이며 굳센 의지를 갖춘 사람이고 투쟁의 선봉에 서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맨몸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만준은 자신이 위임받은 학생운동의 지도자라는 역할에 대해 심리적으로 저항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끝까지 그것을 회피하려 한다. 그는 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자신이 선택된 것인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절대로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스스로에 대해 점차 공포를 느끼고 있다. 또한 데모를 할 때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서지는 듯한 상실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치고 창백한 얼굴로 오만준은 왜 자신이 투사로 호명된 것인지 되묻는다. 최준호가 자신이 위문품 부정 유통자로 호명된 것에 저항했듯이, 오만준은 자신이 투사로 호명된 것에 역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오만준은 현재 자신이 처한 강요된 선택의 상황을 가장 근본적인 억압과 폭력의 상황으로 이해한다. 그가 어린 시절에 겪은 외상적 사건 역시 이러한 강요된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는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강제로 놓이게 됨으로써 극도의 심리적 억압과 공포

를 느껴야 했다. 오만준이 어린 시절 즐기던 여우놀이에서 술래는 여우가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개구리가 된다. 놀이가 진행될수록 점차 여우의 주위로 몰려드는 아이들에게 여우는 마지막 선고를 해야 한다. 개구리 반찬으로 밥을 먹는 여우에게 개구리들이 “죽었니, 살았니”라고 물어보면 술래인 여우는 개구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술래가 죽었다고 하면 그들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살았다고 하면 그들은 와야 도망쳐야 한다. 소년 오만준은 그 사이에서 아무 것도 선택하지 못한다.

소년은 입이 타고 목이 타온다. 그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려고 자기의 눈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는 친구들을 하나씩하나씩 훑어본다. 눈이 짐승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다. 먹히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아이들의 몸에서 냉기가 흐른다. 흐린 불빛 밑에 아이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어둠 속으로 빠져 달아나버리고 아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긴 그림자는 우쭐우쭐 춤을 춘다. 술래는 악몽 같은 어둠을 노려보고 또다시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는 개구리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가 없다. 물론 그들에게 죽었다 하고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이 웃음도 참고 뺨뺨이 서서 눈을 부릅뜨고 장승처럼 목각처럼 꼼짝도 않고 서 있는 것을 무서워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산 자의 유희 같지 않게 유희와 유희를 하는 기분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살았다 하고 도망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뛰어갈 것이다. 빛 바깥으로 저 어둠 속으로 그는 과연 그들을 쫓아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소년은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는 그럴 때가 아닌데도 오한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다시 술래를 자청한다. 그에겐 이 두려운 순간이 풀어지고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는 편이 나온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친구들이 싫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서서히 친구들의 놀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만다.⁷⁾

7) 최인호, 『무서운 복수』, 『황진이-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2, 267면.

오만준에게 학생 운동의 지도자는 어린 시절 여우놀이에서의 술래와 같다. 여우놀이에서의 술래는 저녁 반찬인 개구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선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생 운동의 지도자는 데모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만 반짝이며 자신을 지켜보는 무서운 복수(復讐)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오만준에게 이처럼 자유 없는 의무를 예정대로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는 폭력이나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의미 있는 행위로 다가온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그로부터 비롯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는 어린 시절의 놀이에서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무서운 복수(復讐)에 대한 공포만을 간직하며 살아왔다. 그러한 공포는 심리적 억압으로 그를 짓누르며 그가 스스로를 진정 자유로운 존재로 느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동일한 폭력적 상황에 처할 위기를 맞게 됨으로써 오히려 오만준은 지금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오만준에게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행위 그 자체는 역설적으로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술래의 역할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세속적 삶을 고집하고 주어진 역할을 무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오만준이 무서운 복수(復讐)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의 삶은 평소와 같이 진행될 것이다. 그는 현재 여자 친구인 노영미와 애인 관계를 지속해나갈 수 있으며,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그녀와의 안정된 미래를 꾸려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짓누러온 심리적 억압으로부터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그가 예라고 응답한다면, 그는 미래의 희망이 조금씩 부서져 나가는 상실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스스로를 술래로 규정하는 무서운 복수(復讐)로부터 자유로워져 새로운 출발선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술래였던 나는 그 놀이를 생각할 때마다 무언가 섬찝해지는 두려움을 느끼곤 해요. 그 놀이란 것이 산 것은 삼키고 죽은 것은 뱉어버리는 잔인한 본능의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었거든요. 데모를 할 때마다 나는 문득문득 그 놀이가 생각나고 차라리 지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한 술래가 되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맛보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는 술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용기란 것은 젊은이답지 않게 이처럼 치사하고 비열한 것이예요. 차라리 요즘엔 군대에 가서 이복을 바라보며 밤을 새우는 보초 노릇을 하고 싶어요. 난 모범사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만준은 몸을 일으켰다.

“그들이 내게 술래이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들은 내게 데모를 하라고 설새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릴 때의 그 놀이처럼 놀이에 불과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싸움이에요. 난 술래 노릇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나의 비열한 용기예요.”⁸⁾

술래이기를 자청하고 스스로 데모를 계속할 것을 선택하는 이 순간 오만준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다. 자신의 선택의 대가로 현재의 자유와 미래의 희망까지를 박탈당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지만, 또한 이러한 선택의 행위가 자신을 오랫동안 짓눌러온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주리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만준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행위를 방해하는 억압적인 요구를 따라 자신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진정으로 자유로운 주체가 된다. 학생들과 군인들 간의 대립은 휴교령이 내려질 만큼 절정으로 치닫다가 오만준을 비롯한 제적 학생 15명의 희생과 강제입대로 봉합된다. 자발적으로 희생양의 역할을 떠맡기 위해 최후의 데모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오만준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

8) 최인호, 『무서운 복수』, 『황진이-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2, 267-268면.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만준에게 이러한 희생은 공동체가 폭력적인 갈등의 상황에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자유를 향한 행위이기도 하다. 오만준은 사회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어려운 선택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징집됨으로써 스스로를 과거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고 자유로워진다.

아침 버스들은 역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차장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 조용히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전선주 위를 쳐다보았다.

그때 나는 새들이 후다닥 떼를 지어 새벽의 하늘 위로 튀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새들이 어디론가 따스한 그러나 머나먼 곳, 기억이 캄캄한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오랫동안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⁹⁾

『무서운 복수(復讐)』는 이처럼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오르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무서운 복수(復讐)’를 상징하는 이 새들이 “기억이 캄캄한 머나먼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끝남으로써 『무서운 복수(復讐)』는 오만준에게 삶의 한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단계가 도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오만준에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내면에 살아 있던 그들, 어린 시절 그에게 죽었는지 살았는지의 선택을 강요하며 그의 주위를 빙 둘러서 있던 그 폭력적인 무서운 시선들은 모두 떠나갔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함으로써, 그 때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무서운 복수(復讐)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준호가 가장 자유로운 순간에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9) 최인호, 『무서운 복수』, 『황진이-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2, 294면.

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반대로 오만준은 가장 자유롭지 못한 순간에서야 비로소 스스로의 궁극적 자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자신의 자율성을 빼앗기는 강요된 선택의 상황은 자신의 진정한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그에게 자유는 자유를 오염시키는 강요된 선택이라는 폭력을 통해서만, 자유 그 자체를 무화시키는 억압의 형식 속에서만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자유에게로의 도피, 혹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 「깊고 푸른 밤」

끓어오르는 분노에 지쳐 미국으로 건너온 소설가 ‘그’는 LA에서 우연히 준호와 마주친다. 준호는 ‘그’의 동생과 절친한 사이로 한국에서는 제법 유명한 가수였지만 대마초를 피운 것이 문제가 되어 사 년 동안 연예 활동을 금지당하는 불운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대마초 가수들을 구제한다는 발표가 난 후에도 가수 활동을 포기하기로 한 준호는 두 아이와 아내가 있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미국에 눌러앉기로 작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를 만날 무렵 준호는 여행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식으로 이민해온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밀입국자 신분으로 지내고 있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거렁뱅이” 신세가 된 준호는 싸구려 하숙방에서 마리화나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한다.

준호는 나머지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마리화나를 사는 데 써버리고 있었다. 지난 사 년간 바로 그 마(麻)의 풀잎으로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준호는 피와 같은 돈을 아낌없이 마리화나를 사는 데 써버렸으며 밤이건 낮이건 그 독에 취해 있었다. 그는 한 개의 빵을 먹기

보다도 마리화나를 피웠으며 마리화나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마리화나는 그의 빵이었으며, 술이었으며, 물이었으며, 그의 피였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피웠으며,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것을 피웠다.

그가 그것을 다시 피운다는 사실은 로스앤젤레스 한국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소문이 번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구제할 수 없는 녀석,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놈, 염치없는 새끼로 취급하고 있었다. 마리화나를 사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놈이라고 준호를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생활한 지 석 달 만에 그는 철저한 거렁뱅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으며 그 역시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죽기를 걱정하고 날마다 마시고 먹는 술과 밥 속에 일정한 미량의 독을 넣어두는 자살자와도 같았다.¹⁰⁾

『무서운 복수(復數)』의 최준호에게 데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준호에게 대마초는 공적인 법과 거리를 두려는 개인의 작은 일탈에 불과하다. 미국의 가수들에게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며 연예인에게 주어진 작은 특권과도 같은 위반이다. 그에 대한 엄격한 단속 행위가 우리에게도 없었으므로 준호는 별다른 주의 없이 담배를 피우듯 대마초를 피운다. 그러나 『무서운 복수(復數)』에서와 마찬가지로 『깊고 푸른 밤』에서도 이러한 자유로운 일탈이 지배하는 일상은 아주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괴되고 만다. 준호를 위시한 많은 젊은 가수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마약중독자로 몰려 비난받기 시작했으며, 끝내는 도덕적 패륜아로 지탄받고 사회에서 격리되는 신세가 되었다. 단순한 범법자로 다루었다면 길어야 일 년 정도의 집행유예로 끝났을 것이지만, 그들은 “여론으로 두들겨 맞았으며,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정해지지 않은 이상한 압력으로 재갈을 물리고 격리되었다.”

10) 최인호, 『깊고 푸른 밤』, 『달콤한 인생-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5』, 문학동네, 2002, 220~221면.

위문품 부정 유출 사건이 최준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대마초 사건은 준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대마초 사건 이후 그는 언제든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도 있으리라는 불안감과, “서랍 속에 들어 있는 과도가 서랍 속에 있긴 했지만 언제나 내 의식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과 같은 공포감에 시달린다. 한 사람의 유명인이자 실력 있는 가수로서 그가 쌓고 일군 일체의 것들이 언제든 자의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 제한된 자유와 영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그는 홀로 미국행을 감행한다. 준호에게 미국은 무엇보다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 곳에서는 “서랍 속의 과도”를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스스로의 자유가 언제든 회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깊고 푸른 밤』과 『무서운 복수(復讐)』는 하나의 주제를 공유하는 두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 『깊고 푸른 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무서운 복수(復讐)』의 후일담, 혹은 속편 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무서운 복수(復讐)』의 최준호와 『깊고 푸른 밤』의 준호를 동일 인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최준호는 학교를 구 년째 다니는 복학생이자 제법 필명을 날리는 소설가이고 준호는 한때 제법 유명했으나 지금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가수로서, 두 사람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의 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에게 자유는 가장 자유로운 순간에조차 결코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자유가 언제든 회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순간에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자유로운 순간을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 탈출을 감행하는 것뿐이다. 최준호가 직면한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준호는 스스로의 탈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준호의 예상대로 미국은 그에게 전적인 자유를 선사한다. 준호에게 전적인 자유란 무엇보다 마리화나를 제한 없이 피울 수 있는 자유여서, 없는 돈이나마 모일 때마다 그는 아낌없이 마리화나를 사는데 그것을 써버린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그의 빵이었으며, 술이었으며, 물이었으며, 그의 피였다.” 준호는 밤이건 낮이건 그 독에 취해 있었으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피웠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것을 피웠다.

한국에서 준호가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억압적이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예술가의 자유로운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되었다. 그에게 씌워진 대마초 가수라는 오명과 여론 재판을 거쳐 결정된 무기한 활동 정지라는 처벌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었으며, 부당하게 그를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가 실패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할 때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탓하기보다 시대와 권력을 탓했다. 그는 비난받는 한편으로 동정받았으며, 억압받는 한편으로 자유로웠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자유의 땅이었으므로 그 곳에서 준호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취급된다. 그리고 것처럼 자유로운 존재였으므로, 어떠한 일이든 그로부터 파생된 일들은 모두 그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들로 간주된다. 그의 행동은 예외 없이 스스로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에 따른 결과 일체도 스스로 짊어져야 할 몫이 되었다. 때문에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피워대는 그의 행동은 한국에서와는 달리 흔하디흔한 마약쟁이의 그것으로 취급될 뿐이다. 그것은 더 이상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예술가의 작은 일탈도 아니며, 불운한 시대에 좌절한 지식인의 절망적인 몸부림도 아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와는 달리 “사람들은 그를 구제할 수 없는 녀석,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놈, 염치없는 새끼로 취급”했으며, “마리화나를 사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놈이라고” 그를 비난했다.

한국에서 준호는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편안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일종의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행위자라는 책임에서 벗어나 희생자의 입장에서 좀 더 편안하게 한탄하고 절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의 땅인 미국에서는 희생자로 설 자리가 그에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적인 자유와 더불어 전적인 책임도 함께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미국에서는 희생자의 운명 속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그는 공권력의 자의적인 폭력에 희생된 가련한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억울한 희생자라는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오류이며 단순한 자기기만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의 준호는 「무서운 복수(復讐)」에서의 오만준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에 남아 “서서히 죽기를 걱정하고 날마다 마시고 먹는 술과 밥 속에 일정한 미량의 독을 넣어두는 자살자”와도 같은 삶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는 예외적인 권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적인 의무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서부 일주 여행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택지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일주일 전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데스벨리와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선 그들은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단 하루의 여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의 분노가 폭발해 난장판이 된 샌프란시스코의 파티장을 뒤로 하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난 두 사람은 몬테레이에서 잠시 쉬었을 뿐 계속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차를 달린다. 어느 순간부터 준호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전방만 주시했으며,

‘그도 역시 오후 내내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기만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이 되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자신만의 고독 속에 은거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준호가 녹음테이프를 꺼내 아내가 남긴 음성 편지를 듣기 시작한다.

-오랜만이야. 전번에 당신의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이 편지에 부탁했던 대로 아이들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어… (잠시 침묵)요즈음 어떻게 지내는지요… 나는 아이들 돌보는 것으로 하루해를 보내요 … (중간 생략) … 따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긴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몇십 년 만의 추위라고 야단들이야. 아파트 내에서는 난방이 되어 있지만 따로 석유난로를 피워야만 견딜 만해요… 어찌자는 것인지… (긴 침묵) … 당신이 어찌자는 것인지 모르겠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¹¹⁾

이미 수십 번이나 들어온 음성 편지에서 아내의 절망이 절정에 달할 무렵 준호는 스위치를 눌러 카세트를 꺼버리고 발작적으로 차체의 속도를 높인다. 차는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떨었고, 바늘은 팔십 마일에서 팔십오 마일로 치달았다. “수전중에 걸린 알코올 중독자의 손처럼” 떨리는 차 안에서 ‘그’는 본능적인 직감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그러나 입을 열어 준호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갑자기 차 안에서 뭔가 타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냄새가 난 듯싶더니 차창 앞 차체에서 연기가 몽게몽게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차는 돌연 도로를 벗어나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벼랑 위에 둔 공터의 난간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고, 견고한 쇠난간과 차의 앞부분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부딪친 후 가까스로 멈춰 섰다.

그런데도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옆

11) 최인호, 『깊고 푸른 밤』, 『달콤한 인생-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5』, 문학동네, 2002, 243-245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거짓말처럼 울고 있었다. 쇠난간과의 충돌로 한 쪽 눈을 실명당한 헤드라이트의 흐린 불빛은 간신히 차의 내부를 밝히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난 가겠어.”

젖은 목소리로 준호는 중얼거렸다.

“난 돌아가겠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는 즉시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겠어. 다행히 떠나올 때 왕복 티켓을 사두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형, 난 돌아가겠어. 난 결심했어.”

준호는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연신 씻어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앉아 있지. 이곳은 남의 땅이야. 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구할 수도 없어.”¹²⁾

한국에서 준호는 가장 자유로울 때조차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으나, 반대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가장 자유로울 때조차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 그가 하는 일이란 자유가 주는 전적인 책임을 견디지 못해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것뿐이다. 그가 즐기치게 빠져드는 마리화나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려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그 자유로부터 끊임없이 도피하려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는 마리화나로 상징되는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이제는 마리화나를 통해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은 차라리 견디기 쉬운 일이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자유로부터 억압당하는 일이다. 이러한

12) 최인호, 『깊고 푸른 밤』, 『달콤한 인생-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5』, 문학동네, 2002, 247면.

사실을 깨달은 준호가 진정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책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나는 내가 맡은 책임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향한 작은 가능성이나마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준호는 마리아나로 상징되는 자유가 억압적 현실에 대한 대안이나 저항은 물론이고 끔찍한 패배조차 되지 못하는, 오히려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순쉬운 해결책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음으로써 그것과 영원히 결별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강요된 선택을 따라 고통스럽고 지루한 현실적 책무와 일상적 걱정거리라는 어려운 길을 택함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깊고 푸른 밤』은 일상적인 책임과 속박에 시달리는 주체가 그것에서 벗어나 발길 닿는 대로 어디든 가 닿을 수 있는 자유를 갈망한다는 고전적인 주제를 뒤집어버린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일상적인 책무를 견디는 삶 그 자체를 자유에 갇힌 두 사람의 간절한 욕망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준호가 ‘그’와 함께 달려온, 중력이 없는 텅 빈 공간과도 같은 미국의 고속도로는 단지 현실의 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죽음의 공간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 암흑과도 같은 죽음의 한 가운데에 강렬한 삶의 가능성이 놓여 있음을, 혹은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절대적인 부자유의 형식 속에 오히려 절대적인 자유의 가능성이 놓여 있음을 『깊고 푸른 밤』의 결말은 보여준다. 궁극적인 삶은 궁극적인 죽음과 공존하며 전적인 자유는 전적인 부자유와 공존하고 있기에 준호와 ‘그’가 마주한 현실은 ‘깊고 푸른 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결론

『무서운 복수(復讐)』의 최준호에게 억압과 금지는 자유의 가능성의 조건이자 불가능성의 조건이다. 그의 자유는 권력에 의탁한 자유이며, 억압과 금지에 기생하는 자유이자, 가장 자유로운 순간에조차 결코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이다. 반대로 오만준은 가장 자유롭지 못한 순간에 서야 비로소 스스로의 궁극적 자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자유는 자유 그 자체를 무화시키는 억압의 형식 속에서만 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깊고 푸른 밤』의 준호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자유를 향한 올바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절대적인 부자유 의 형식 속에 오히려 절대적인 자유의 가능성이 놓여 있음을 준호는 자유로부터 억압당하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무서운 복수(復讐)』의 최준호에게 자유란 공식적인 법과 규율을 암묵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반대로 폭력이란 이러한 자유로운 위반의 가능성을 말살하려는 일체의 시도이다. 『무서운 복수(復讐)』의 자전적 성격을 염두에 둔다면 최준호의 자유는 작가 최인호가 생각하는 자유와도 무관하지 않을 텐데, 최인호가 청년문화의 기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논리적 전제 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규율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저항이 최인호가 주창하는 청년문화의 근본적인 속성이리라는 것이다. 최인호에게 자유는 언제나 위반의 자유이므로, 그는 그러한 위반이 가능하도록 미리 전제되어야 하는 권력의 성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무관심하다. 위반의 가능성을 말살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것이든, 혹은 어떤 토대와 과정에 기반한 것이든 최인호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권력은 곧 규율을 필요로 하며, 규율은 곧 위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이 중요

할 뿐이다. 규율을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자율적 위반을 허용하기만 한다면, 그 권력은 충분히 좋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최인호로 대표되는 청년문화가 기존의 민중문화나 민족문화, 혹은 자유주의적 지식인 문화와 불화하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민중문화나 민족문화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지닌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대로 자유주의적 지식인 문화는 어떤 권력이든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민중문화나 민족문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권력만이 좋은 권력이며,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나쁜 권력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에게 권력은 그것이 무엇을 표방하는 것이든 그 자체로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며, 언제나 지적이고 문화적인 비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권력은 언제나 틀린 것이며, 옳은 것은 오직 권력에 대한 비판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문화는 특정한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으며, 권력에 대한 비판만을 일삼지도 않는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위반을 추구하며, 위반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다. 청년문화는 민중문화나 민족문화처럼 엄숙한 것도, 지식인 문화처럼 지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청년들의 이유 없는 반항처럼 저항적인 것이며, 동시에 유행과 스타일을 즐기는 소비문화처럼 즐거운 것이다.

1970년대 최인호의 문학은 근본적으로 자유와 폭력을 둘러싼 이러한 전제와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별들의 고향』과 『바보들의 행진』은, 나아가 『별들의 고향』과 『무서운 복수(復讐)』는 겉보기에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 규율에 대한 위반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최인호에게 자유가 위반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면, 『별들의 고향』의 상업주의나 『바보들의 행진』의 소비문화는 모두 그러한 자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서운 복수(復讐)』와 『별들의 고향』 사이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로 짐작하는 것만큼의 간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최인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들은 모두 자유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억압하려는 폭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반의 자유를 말살하고자 하는 일체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최인호는 때로는 사회성 짙은 『무서운 복수(復讐)』를, 또 때로는 상업성 짙은 『별들의 고향』이나 『바보들의 행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상업주의와 소비문화는 그것이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는 점에서 이미 규율에 대한 위반이며, 또한 그것이 규율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리얼리즘적이고 모더니즘적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에 대한 저항이다.

그러나 『깊고 푸른 밤』을 발표하는 1982년 즈음에 이르면, 이러한 청년문화의 논리는 그 내적 모순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청년문화의 위반의 논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마치 최준호의 자유가 권력에 의탁한 자유이자 억압과 금지에 기생하는 자유인 것처럼, 근본적으로 권력과 공모 관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유이다. 만약 권력이 그러한 공모관계를 부인하거나 거부한다면 청년문화의 논리와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현실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깊고 푸른 밤』은 권력의 폭압에 의해 자신의 자리를 완전히 상실한 청년문화의 주역들이 택할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물론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준호와 ‘그’가 유명한 통기타 가수이자 당대의 영향력 있는 청년 작가였다는 사실이다. 준호가 대마초로 인해 출연정지를 당하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청년문화와 당대 권력 간의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암시한다. 유신정권의 폭압과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날로 심해져가는 한국에서 청년문화는 그 현실적 토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문화의 주역들이 발견한 귀결점은 의무에로의 도피이다. 『깊고 푸른 밤』의 준호와 ‘그’가 택한 미국행이 자유에로의 도피라고 한다면, 그 도피가 명백히 실패로 끝난 후 다시 그들이 한국으로 돌

아오고자 하는 것은 의무에로의 도피라고 할 수 있다. 준호가 가족 부양의 책임을 완전히 떠맡으면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처럼, 최인호는 소설가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떠맡음으로써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소망이 1980년대에 최인호가 『잃어버린 왕국』으로 대표되는 역사소설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내적 동기라고 판단된다. 준호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자각으로 실의의 나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의 유명 소설가이자 지식인인 자신에게 주어질 법한 그럴 듯한 의무를 찾아 그것을 최선을 다해 수행함으로써 청년문화의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파탄에서 비롯된 궁지로부터 최인호 역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청년문화의 기수를 자처하던 시절의 최인호에게 글쓰기는 지속적인 위반의 행위이자 스스로가 자유로운 존재임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그것은 「무서운 복수(複數)」의 위문품 빼돌리거나 대학생들의 데모처럼 주체가 규율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유의 몸짓이었다. 그러나 의무에로의 도피를 결심하고 난 이후의 글쓰기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에 더 가깝게 된다. 최인호의 대중소설이 규율에 대한 전적인 위반의 형식이었다면 그의 역사소설은 절대적인 자유의 가능성을 함축한 절대적인 부자유의 형식이 된 것이다. 그에게 글쓰기는 이제 보다 엄숙하고 진지한 의무의 수행이 되었다. 구도자적 형식으로 뒤바뀐 글쓰기 속에서 최인호는 1980년대 내내 청년문화의 논리와 단절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최인호, 『황진이-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2』, 문학동네, 2002.

최인호, 『달콤한 인생-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5』, 문학동네, 2002.

2. 논문

곽상순, 「최인호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정상성과 병리성의 상관성 연구」, 『문학치료연구』 4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김만수, 「한국소설에 나타난 미국의 이미지」, 『한국현대문학연구』 25, 한국현대문학회, 2008.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심재욱, 「1970년대 ‘증상’으로서의 대중소설과 최인호 문학 연구」, 『국어국문학』 171, 국어국문학회, 2015.

심재욱, 「최인호 단편소설 〈타인의 방〉의 서사구조 연구」, 『우리문학연구』 45, 우리문학회, 2015.

<Abstract >

The problem of freedom in Choi In-ho's novels
—For *Scary multiple* and *Deep Blue Night*

Guahk, Sang-So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freedom in Choi In-ho's novel, targeting *Scary multiple* and *Deep Blue Night*. Both Choi Jun-ho and Oh Man-joon in “*Scary multiple*” are oppressed for freedom. For Choi Jun-ho, freedom is freedom of deviation, but it is a freedom that can be recovered at any time according to the voluntary choice of public power. For Oh Man Joon, freedom is the freedom to voluntarily choose the one he must choose in the context of forced choice. For him, the choice is always presented as a choice between the bad and the worse, and previously, he couldn't easily choose which one because of the fear of choosing the worse one. In this situation, Man-Joon provides the opportunity to escape from the oppression that plagued himself paradoxically by choosing the one that appears to be the worst.

Meanwhile, in *Deep Blue Night*, To Junho in Korea, marijuana symbolizes freedom of deviation, but in the United States it is only a means of escape. In Korea, Jun-ho seeks the same freedom of deviation as Choi Jun-ho and faces the same situation of oppression, but in the United States, he is closer to the situation of Oh man-jun. He faces a situation of forced choice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escape from the oppression that plagued himself by choosing the form of absolute independence that seems to be the worst.

Oppression and prohibition are both a condition of freedom and a

condition of impossibility for Choi Jun-ho of *Scary multiple*. His freedom is the freedom to depend on power, the freedom parasitic to oppression and prohibition, and the freedom that can never be completely free even in the most free moments. On the contrary, it can only be said that Man Joon is in a state where he can confirm the possibility of his own ultimate freedom only when he is not the most free. For him, freedom can only emerge through the violence of forced choice that contaminates freedom, and only in the form of oppression that neutralizes freedom itself. Likewise, the ending of *Deep Blue Night* shows that the possibility of an intense life lies in the midst of a dark death, or that the possibility of absolute freedom lies in the form of absolute freedom of responsibility and duty.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Choi In-ho speaks through *Scary multiple* and *Deep Blue Night* that ultimate life coexists with ultimate death and total freedom coexists with total freedom.

Key words: Choi In-ho, freedom, repression, a forced choice, *Scary multiple*, *Deep Blue Night*

투 고 일 : 2020년 2월 19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20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